

# 노인인구 느는데 여가복지시설 '제자리'

### 제주 60세 이상 1000명당 3.3곳... 전국서 꼴찌 수준 유료 요양기관수는 1년새 3.5% 늘어 지속적 성장세

제주의 노인인구가 이미 고령화사회에 진입했지만 이에 따른 노인 여가복지시설은 되레 후퇴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인인구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반면 여가시설은 답보상태로 사회적·행정적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18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통계로 본 2019년 호남·제주 고령자 현황 및 분석' 자료에 따르면 제주지역 노인 여가 복지시설수는 60

세 이상 노인 1000명당 3.3개소로 호남·제주권에서 가장 적다. 전남의 16.5개소에 견주면 1/5 수준에 머물고 있다.

전북(13.8개소)·광주(5.0개소)도 제주보다 낫다. 특히 전남대비 증감률로 보면 제주는 -5.7%(전국 평균 -3.2%) 감소하며 증감률이 가장 높다. 2009년 4.4개소에서 매년 수치를 낮추며 3.3개로 하락, 10년째 꼴찌에 머물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지난해 도내 요양기관은 1200개소(제주시 895, 서귀포시 305)로 전년비 3.5%(전국 평균 1.8%) 증가, 호남·제주권에서 가장 크게 성장했다. 10년 전 도내 요양기관은 885곳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다.

현재 제주지역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14.5%로, 2017년 이후 고령화사회(14.0%)에 진입한 상태다. 현재 9만6000명(남자 4만명, 여자 5만6000명)으로 지난해에 견줘 2.4% 상승했다. 인구는 66만명으로 0.2% 늘어난 반면 고령인구는 크게 늘었다는 의미다. 그리고 앞으로 20년 후

인 2039년 고령인구 비율은 30%를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가구별로 보면 올해 기준 도내 고령자가구는 20.9%이며 이 가운데 1인 가구는 6.6%를 점유하고 있다. 노인부양비는 올해 20.5명에서 2045년에는 64.3명으로 크게 늘어 사회적 부담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43.9%(전국평균 31.5%)로 지난해 동기대비 -2.6% 내렸다. 비경제활동인구가 1년 새 4000명이 늘었고, 대신 고령 취업자는 1000명이 줄었다.

## 도 전역 미세먼지 주의보

갑작스런 기온 강하로 쌀쌀한 날씨를 보이고 있는 제주지역에 미세먼지 주의보까지 내려졌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8일 오후 6시를 기해 제주 전역에 미세먼지(PM-10) 주의보를 발령했다.

발령농도는 153 $\mu\text{g}/\text{m}^3$ 이다. 미세먼지 주의보는 입자 크기 10 $\mu\text{m}$ (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권역별 150 $\mu\text{g}/\text{m}^3$  이상으로 2시간 지속할 때 내려진다.

제주도는 각 기관(또는 사업장, 업소 등)에서는 도민(이용자)에게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발령상황 및 시민행동요령을 신속하게 알려줄 것을 당부했다.



**만개한 국화 즐기기** 18일 제주시 한림공원 국화축제를 찾은 관광객들이 만개한 국화꽃을 감상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있다. 이번 국화축제는 24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 제주 아파트 실거래가 6분기 만에 회복세

### 올 7~9월 가구당 분양가격보다 2532만원 수익

올 3분기(7~9월) 도내 아파트 실거래가격이 오랜만에 분양가보다 높게 형성되며 5.36%의 성장세를 기록했다. 지난해 1분기를 시작으로 마이너스 성장중 6분기 만에 회복세로 돌아서며 구매자들의 수익으로 이어졌다.

18일 부동산정보서비스 업체인(주)직방에 따르면 입주 1년 미만의 아파트 대상으로 올 3분기 제주지역의 분양가 대비 매매 거래가격은 2532만원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1년 반만의 일이다.

앞서 제주지역 아파트 실거래가격은 분양가에도 미치지 못했다. 지난해부터 올 상반기까지 6분기의 도내 아파트 실거래가격에서 분양가를 뺀 소유자의 실익 및 분양가 대비 실거래가(%) 증감률은 각각 지난해 >1분기 -5653만원, -10.0% >2분기 -1억3만원, -22.15% >3분기 -1903만원, -2.56% >4분기 -3690만원, -9.43%에 이어 올해 >1분기 -2513

만원, -6.12% >2분기 -2339만원, -5.91% 등이다.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구매자들은 아파트를 사고도 되려 큰 액수의 손실을 봤다.

하지만 올해 3분기 들어 오랜만에 회복세를 보여 흑자로 전환했다. 제주의 경우, 2017년까지 분기별 평균 30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하지만 이후 6분기 동안 줄곧 하락국면을 맞다가 최근 반등하며 향후 제주지역 아파트 분양시장에도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 "도교육청 노사합의 지켜 산업안전보건위 설치하라"

민주소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가 제주도교육청에 기존 노사 합의로 연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라고 밝혔다.

교육공무직노조는 18일 기자회견에서 "강원, 대전, 충북, 서울, 전북 등 5개 교육청은 이미 급속실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를 시작했지만 제주도교육청은 그간의 합의를 뒤집는 것은 물론이고 원점으로 돌려보냈다"고 꼬집었다.

## 오늘 한라산 '눈'... 기온도 '뚝'

### 기상청 "체감온도 더 낮아"

19일 제주지역에 강한 바람이 불면서 기온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제주지방기상청은 19일 새벽 한라산 정상 부근 눈이나 비가 내리겠다고 18일 예보했다. 예상 적설량은 1cm 내외, 예상 강수량은 5mm 미만이다.

19일 아침 최저기온은 8~10℃(평년 7~9℃), 낮 최고기온은 11~14℃(평년 15~17℃)로 평년보다 낮을 것으로 예보됐다.

또 20일 아침 최저기온은 7~10℃, 낮 최고기온은 12~16℃로 예상됐다. 기상청은 찬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건강 관리에 유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20일 새벽까지는 제주도전해상과 남해서부먼바다에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매우 높은 물결이 일어 항해하거나 조업하는 선박들도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제주대 약학대학 편입학 경쟁률 11.7대 1

### 33명 모집에 387명 지원 거점국립대 평균 5.4대 1 일반학생 전형은 15대 1

제주대학교가 편입제도를 통해 첫 신입생을 선발하는 2020학년도 약학대학 편입학 원서접수 마감 결과 총 33명 모집에 387명이 지원해 평균 11.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거점국립대학교 평균 경쟁률 5.4대 1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모집군별로는 15명을 뽑는 '가군'에 214명이 지원해 14.3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고 18명을 모집하는 '나

군'에는 173명이 지원해 9.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세부 전형별로는 20명을 선발하는 일반학생 전형에 300명이 지원(15.0대 1)했고 제주도 소재 고교와 대학 출신자 대상 지역인재 전형은 10명 모집에 71명(7.1대 1), 3명을 선발하는 농어촌학생 전형에는 16명(5.3대 1)이 각각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군은 1단계 성적(PEET성적, 공인영어성적, 출신대학성적)으로 합격자를 선발한다. 나군은 1단계 성적으로 2배수 선발한 뒤 2단계에서 면접고사 점수를 반영해 최종 합격자를 가려낸다.

## "제2공항 건설은 제주 경제위기 해소 기회"

### 제주경제단체 7곳 성명

제주지역 경제단체들이 제주도의회가 지난 15일 '제2공항 건설 갈등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것과 관련해 18일 성명서를 내고 아쉬움과 함께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해당 단체들은 제주상공회의소·제주도관광협회·대한건설협회 제주도회·제주경영자총협회·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제주지회·제주도상인연합회·한국장애인경제인협회 제주지회다.

이들은 "도내 경제단체가 요청한 '공론화 특별위원회 반대' 입장에 비해서는 아쉬움이 있고, 위원회 구성이 도리어 도민 분열을 지속시키며 국제사업 발목을 잡기 위한 수단이 될까 걱정이 많다"며 "특히 특위 위원 구성이 특정정당에 편중됐고 업무내용과 활동범위 역시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 중립성·정당성에 깊은 우려를 감출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2공항 건설에는 5조원 이상의 재원이 투입돼 제주 경제지도를 바꾸어 나갈 사업이라는 점에서 경제계의 기대감이 높은 게 사실"이라며 "제2공항 건설사업은 직면한 제주의 경제위기를 해소시킬 획기적인 기회라는 점에서 조기 추진을 강력히 재차 촉구한다"고 밝혔다.

본 행사는 [제주의소리](#) [노컷뉴스제주](#) 페이스북에서 생중계 합니다.

## 11월 23일(토) 12:00 - 20:00

### 칠성로 쇼핑거리 (관덕로11길 탐동 방향)

**제주 6차산업 우수제품들을 한자리에서 만나고  
저렴하게 구입/체험 할 수 있는 특별한 날~!**

6차산업이란? 제주농촌의 1차산업 자원을 바탕으로 식품, 특산물, 공산물 제조(2차산업) 및 관광, 숙박, 교육, 문화 등 (3차산업)을 연계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활동

**딱 하루만 진행되는 최대 40% 할인행사**

※ 각 업체별 할인율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1일차**

제주형 6차산업 발전방안을 위한 육감만족 세미나

일 시 : 2019년 11월 22일(금), 오후 3시 - 5시

장 소 : 오드리인호텔 1층, 키라 연회장

주 제 : 제주6차산업, 관광 융복합으로 미래를 담다.

발 표 : 1. 제주6차산업 활성화를 위한 관광 융복합 방안  
2. 바른 먹거리와 직한 여행, 보물창고이 꿈꾸는 지속가능 6차산업

참석대상 : 제주도민 누구나, 도내·외 주요 초청인사, 6차 산업 관계자 등

**2일차**

제주 6차산업 전시 및 부대행사

일 시 : 2019년 11월 23일(토), 오후 12시 - 8시

장 소 : 칠성로 (7)영원문화예술센터 앞 행사장 및 상가로 일원

참석대상 : 도내 6차산업 관련 우수 농가 및 생산자 단체, 제주도민 및 관광객

프로그램 : 6차산업 제품 전시 및 판매 / 최자경 경매 / 체험 및 게임 공연 및 상용권 이벤트

주최·주관 : 제주농업농촌 6차산업지원센터 **제주의소리 제주CBS**

후 원 : **노컷뉴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의 : 육감만족한마당 운영사무국 064)805-8830